2000 지방공기업 경영 우수사례*

– 청주의료원(開放病院運營(Attending System)을 중심으로) –

Ⅰ. 사업추진배경

1. 사업여건

청주의료원이 개방병원(Attending System)제도를 도입한 것은 의료환경의 내·외적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우선 청주의료원의 당면현황 및 내적환경을 살펴보면 청주의료원의 진료권역은 주로 청주·청원으로 이 지역의 인구는 70만명인데 반하여 병원수는 종합병원만 하여도 병원수가 7개, 병상수는 2천6백개로 종합병원 중 청주의료원이 점유하고 있는 병상수는 8%에 지나지 않아 적은 진료대상인구에 대해 많은 타 병원과 치열한 경쟁을 하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의료원의 개방병원제도 도입전 최근 일평균 환자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외래환자수는 환자유치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증대시키는데 한계를 보였으며, 병상가동율은 극히 저조한 편이었다.

<1996년도~1999년도 환자동향>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비 고
1일평균 외래 환자수	205명	230명	206명	232명	
1일평균 입원환자수	378명	345명	362명	378명	전체병동
1일평균 입원 환자수	142명	136명	136명	147명	폐쇄병동 제외(개방병동)
병상가동율	62.5%	60%	60%	67.3%	개방병동 가동율

이와 같이 저조한 병상가동율은 그만큼 유휴인력 및 유휴장비가 존재했다는 것을 뜻한다 하겠다.

*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2000년도 지방공기업경영우수사례를 수록한 것이며 다음호(제4호)에서는 "지방공사 서귀포 의료원과 인천터미널"의 경영사례를 게재할 예정임.

지상중계

청주의료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3억 내지 4억원 정도의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었고, 병상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인력은 확보해야 했으므로 일정액이상으로 비용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본원은 시설·장비·인력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찾아야 했다.

한편 외적 의료환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보건의료계에서 보는 21세기 의료개혁목표 및 그와 같은 목표 하에 구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등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의료개혁목표

- ☞ 의료의 접근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의 보장
-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경제의 타격 방지
- ☞ 거시적인 효율성의 추구
- ☞ 미시적인 효율성의 추구로 배합의 효율화와 의료서비스 생산의 기술적 효율화
- ☞ 의료이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선택권의 보장으로 소비자의 만족과 의료의 질적 보장
- ☞ 의료서비스생산과 관련된 공급자의 자율성 보장으로 의료의 질 보장

↓

정부의 구체적 시책

- ☞ 의료기관종별의 표준업무개발
-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신설, 주치의제도
- ☞ 의료기관간 시설·장비·인력의 공동활용
- ☞ 선택진료제도, DRG 지불제도
- ☞ 의료분업실시, 의약품 유통개혁
- ☞ 의료보험재정통합, 의료보험심사제도변화
- ☞ 수가차등제 실시(상대가치점수제 도입) 등

이와 같은 의료환경의 변화는 그간의 의료전달체계의 질적 변화를 야기시킬 것이고, 변화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개개의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 스스로 그 변화의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내적으로는 시설·장비·인력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외적으로 변화하는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본원의 능동적인 역할을 다하는 방안으로 채택하게 된 제도가 개방병원제도이다.

2. 도입취지

'99년 4월 당시 이와 같이 내적으로는 유휴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였고, 주변 의원급의료기관으로서는 부족한 시설 및 장비로 진료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 환자들로서는 친밀한 유대감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들로부터 계속적인 진료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개방병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 당시에는 진료에 따른 수익분배문제나 인식부족으로 이용이 저조하였으나 의약분업 등 점차 의료환경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지금은 우리 원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의원수가 44개에 달하고 2000년 개방병원 진료비 총액도 ₩302,679천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의약분업 정착 등 향후 의료환경의 변화 및 환자성향변화 등도 개방병원제도 이용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도입 당시에는 제도시행사례나 법적 근거가 없어 여러 가지 시행에 망설인 점도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의료법에 개방병원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고 인천의료원등이 이를 도입 운영하는 등 점차 늘어나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방병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갖추어졌다고 하겠습니다.

Ⅱ. 사업추진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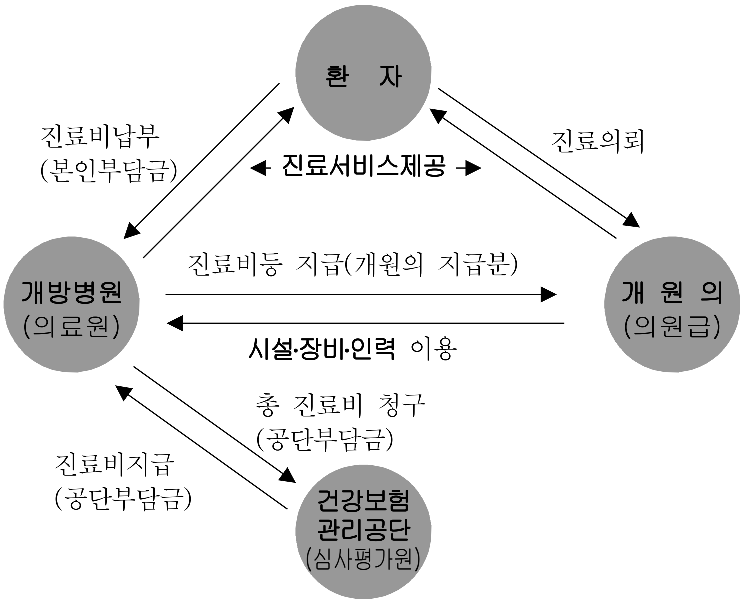
1. 사업개요

개방병원은 지역내 개원의사가 자신의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더 이상 자체의 유휴시설·장비·인력으로 진료를 행하기 어려울 경우 자신이 직접 환자와 함께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상의 병원(개방병원)을 찾아 그 병원의 시설·장비·인력을 이용하여 진료(입원·수술 등)를 계속하는 제도로 개방병원이 제공하는 시설은 입원실, 수술실, 분만실, 신생아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등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도표로 표시하면 〔그림1〕과 같다.

2. 청주의료원 개방병원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진료환자범위 -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환자
◦ 진료행위책임 등 - 입원, 회진, 퇴원등 모든 진료행위는 개원의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수술시간의 결정은 본원 해당 진료과 및 마취과와 협의하여 시행

<그림 1>



◦ 의료수가 적용 - 본원의 진료수가 적용

◦ 진료비 청구 - 본원에서 본인 및 보험자부담진료비 수납 및 청구

◦ 본원과 개원의 진료비 분배방법 - 진료비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구분에 따라 기본수술료를 제외한 보험·보호 기본수가, 재료비, 식대 및 기타 비급여, 행위료 등 본원의 수입으로 하고, 진료행위료의 종합병원 가산율 및 의학관리료(회진료), 기본수술료는 개원의의 수입으로 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있는 데 그 구분별 구체적인 분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방병원진료수입 배분율표>

구분	과별	환자유형	청주의료원수입	개원의수입
행위료	내과계통	의료보험	기본수가수입	진료행위료의 종합병원가산율 25%수입
		의료보호	기본수가수입	진료행위료의 종합병원가산율 18%수입
		산재보상보험	기본수가수입	진료행위료의 종합병원가산율 37%수입
		자동차보험	기본수가수입	진료행위료의 종합병원가산율 72%수입
	외과계통		기본수술료를 제외한 수입	기본수술료 전부(가산율 제되)
회진료	내과계통	내 과 소 아 과 정 신 과	입원료 중 65% 수입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회진료) 35% 수입
	외과계통	내과계통의 수술을 요하는 환자	입원료 중 70% 수입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회진료) 30% 수입

◦ 진료비 분배시기 및 지급방법 - 월단위로 다음달에 청주의료원이 개원의에게 지급. 단, 삭감분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
◦ 의료분쟁비용의 부담 - 발생사유에 따라 구분 부담하되 구분이 어려운 경우 개원의가 참여한 본원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단, 심의조정에 이의가 있을시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정
◦ 진료비 감액 - 그 원인별로 분배액에서 감액 처리
◦ 본인부담금 미수금 발생시 처리 - 그 원인에 따라 분배액에서 감액
◦ 제증명료 - 발행자의 수입으로 하되 청주의료원 또는 개원의 규정에 의함

Ⅲ. 사업추진성과

1. 의업수입 증대(2000년 : 302,679천원)

개방병원운영은 1998년말 청주의료원이사회에 제시하여, 1999년 1월부터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9년 5월 진료를 시작하였다. 시행초기에 비하여 2000년도에는 개방병원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 계약체결 개원의 수는 1999년말 26개 의원에 불과하였었는데 2000년 8월 현재는 44개 의원으로 증가하였고,
◦ 진료인원은 시행초기 약 8개월의 기간동안 연인원 203명이던 이용환자수가 2000년도 12개월의 기간동안 연인원 3,004명으로 전년대비 2801명이나 증가하였고 전체입원환자수의 병상이용율이 3.8%에 해당하였음.
◦ 개방병원의 진료비총액은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수입을 포함하여 1999년 시행초기 약8개월 기간동안 개방병원 진료수입이 20,453천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도 12개월의 기간동안의 진료실적은 302,679천원으로 전년대비 282,226천원의 의업수입 증가, 약 1,480% 증가하였다.

<연도별 진료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1999,. 5.1.~1999.12.31.	2000.1.1.~2000.12.31.	전체기간
계약 의원수	26의원	44의원	44의원
진료 실인원	31명	736명	767명
진료 연인원	203명	3,004명	3,207명
진 료 실 적	20,453천원	302,679천원	323,132천원

이는 2000.12월말 현재 본원 입원의업수입 8,410,000천원중 3.6%에 달하는 수입으로 점차 의업수입 중 개방병원 진료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개방병원 진료인원과 진료실적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매월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점차 개방병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2000년도 개방병원 월별진료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진료연인원	진료실적
계	3,004	302,679
1월	56	4,996
2월	109	9,009
3월	200	14,714
4월	276	23,803
5월	262	25,902
6월	283	27,597
7월	323	33,166
8월	184	22,495
9월	159	18,367
10월	385	36,276
11월	418	46,575
12월	349	39,779

□ 참고로 본원과 개방병원계약을 체결한 개원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계약체결현황>

진료과목	계약의원수	진료과목	계약의원수
계	44		
내 과	11	산 부 인 과	5
외 과	5	소 아 과	5
정 형 외 과	5	안 과	1
정 신 과	3	이비인후과	4
신 경 외 과	1	가정의학과	1
재활의학과	1	통증크리닉	1
피 부 과	1		

☞ 각 진료과별 이용시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진료과가 입원실, 검사실, 방사선실, 약제과를 이용하며, 중환자실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과에서 이용하고, 수술실은 내과, 소아과, 정신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이용하고 있다.

<각 진료과목별 이용사례>

진료과목	이용시설	비고
내　　과	입원실, 검사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약제과	
외　　과	입원실, 검사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약제과, 수술실	
정 형 외 과	입원실, 검사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약제과, 수술실	
정　신　과	입원실, 검사실, 방사선실, 약제과	
안　　과	입원실, 검사실, 방사선실, 약제과, 수술실	
산 부 인 과	입원실, 검사실, 방사선실, 약제과, 수술실	
이비인후과	입원실, 검사실, 방사선실, 약제과, 수술실	
소　아　과	입원실, 검사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약제과	

2.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의료발전에 기여

개방병원제도는 이용환자는 물론 개원의와 개방병원 3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많은 장점과 이익을 제공하게 한 제도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 우선 이용환자들은

첫째, 이용환자들이 신속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다가 시설 및 장비 등의 한계로 인하여 타 병원을 다시 찾아 진료를 해야 할 경우 진료 접수를 하고 각종 검사를 거친 후에 그 병원에서 진료를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될 것이고 다시 찾은 병원에서 더 이상 진료를 못해 또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한다면 정착 진료는 제대로 못해보고 진료를 위한 사전절차만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용환자들이 가장 양질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방병원제도를 이용하면 최초에 진료한 의사가 계속적인 진료를 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 대한 병력에 가장 밝은 의사가 계속적인 관찰과 진단하에 진료를 하게 되므로 가장 양질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셋째, 예방·치료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초에 진료한 의사가 신속하고 양질의 진료를 끝까지 책임지게 되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병력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예방·진료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는 곧 개방병원을 이용하는 의사가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불필요하게 검사나 진단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경미한 증상에 대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병력관리하에 과다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피할 수 있어 그 만큼 비용도 저렴하게 된다.

◦ 다음으로 개원의 들은

첫째, 단골환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환자들에게 해당의사가 신속하고 양질의 진료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병력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단골환자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투자부담이 대부분 과다한 형편이고 또한 투자 위험도 큰 의료인력·시설·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진료기회 및 능력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다. 인력·시설·장비의 한계로 진료를 할 수 없던 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회가 없어 사장될 수 있는 진료능력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넷째, 개방병원의 인력으로 진료비 산정 청구등 의료행정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므로 인력과 시간·경비 등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개방병원은

첫째, 유휴인력·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개원의들의 개방병원 이용은 그 만큼 개방병원의 인력·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주어 수입을 증대하는 계기가 된다.

둘째,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인력·시설·장비의 활용도 증대로 인한 수입증대는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재투자를 가능케 해 재투자를 통해 이용환자들에게 향상된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진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개원의들의 이용요구가 많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새로운 투자도 가능케 해 개방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병원의 홍보효과로 병원이미지 개선과 환자유치에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

Ⅳ. 앞으로의 발전과제

1. 문제점

1) 입원실 이용에 편중

본원 시설을 이용하는 개원의들이 본원을 이용하는 예는 대부분 입원실의 부재 또는 부족하거나 입원실이 있어도 입원치료를 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재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술기구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본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비인후과, 일반외과의 일부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과와

<2000년 개방병원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단위 : 천원)

진료과목	진료 의원수	진료실적
계	7	302,679
내 과	2	26,566
일 반 외 과	1	2,111
안 과	1	1,329
안 과	1	2,284
이 비 인 후 과	2	68,217
소 아 과	1	201,456

소아과 등 내과계 개원의들의 진료실적이 외과계 진료실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계약 체결후 관망 또는 이용을 기피하는 개원의사들이 있음.

이용하는 개원의 보다 3배 이상이나 되는 개원의들이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용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원의가 개원시 투자한 입원시설 및 의료장비의 활용
나. 환자들에 대하여 감수하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투자하는 시간에 비하여 적은 수입
다. 타 병원들의 이용사례를 좀 더 지켜본 후 이용여부 결정
라. 의약분업실시이후 환자변동 추이를 지켜본 후 이용여부 결정
마. 개방병원 실시이후 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동할 지도 모른다는 염려
바. 외래진료시간을 피하여 회진시간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사. 본원의 해당 진료과 미개설로 인하여
아. 계속적인 개방병원이용 홍보부족 등

3) 병실의사(전담의) 미확보-(레지던트)

현재 개원의 들에 의해 입원된 환자들의 회진 등 진료는 거의 전적으로 개원의 들에 의해 이루어진고 있는 데 개원들의 해당의원에서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아침, 저녁 정기회진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환자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전담의사가 필요한 데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 개선방안

1) 제도개선

2000년 말까지 의약분업 실시후의 의업수입 동향 및 개방병원이용사례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2001년도에는 개방병원제도 도입취지에 보다 부합하도록 인력·장비·시설부문 등 전 부분에 걸쳐 고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또한, 이용의사가 있는 보다 많은 의원들이 개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배분 방식의 조정, 이용편의제도 보완, 계약사항 보완 등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치의제도나 가정간호사업 등의 제 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전문의인개약 개원의 수를 추가하면 개방병원에 레지던트 배정을 위한 전문의 수가 충족되므로 개방병원에 레지던트 배정이 가능토록 한다든가 필수의약품 및 저가의약품을 사용하면 의약품 사용장려비용을 지급 또는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수가차등화 해서 진료비를 지급하듯이 개방병원 활성화 방편으로 개방병원을 이용하면 '개방병원이용료'등 명목으로 진료수가 상대가치점수를 선정하고, 수입을 보조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Ⅴ. 동 사업이 주는 시사점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데에는 네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로, 내외적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경영현안에 대한 경영자의 투철한 경영개선 의지가 있었고,

둘째로, 회계전산화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원가계산이 이루어져 경영상태의 조기 자가진단이 가능했으며,

셋째, 현대화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내외환경변화 파악 등 정보수집이 신속히 이루어졌고,

넷째, 거의 사례가 없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과정 중 당면했던 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내부역량이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사업의 성공적 추진요인은 환경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21세기에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요인을 시사하고 있다.

2000 지방공기업 경영 우수사례

- 경상남도 개발공사 -

I. 설립개요

1. 설립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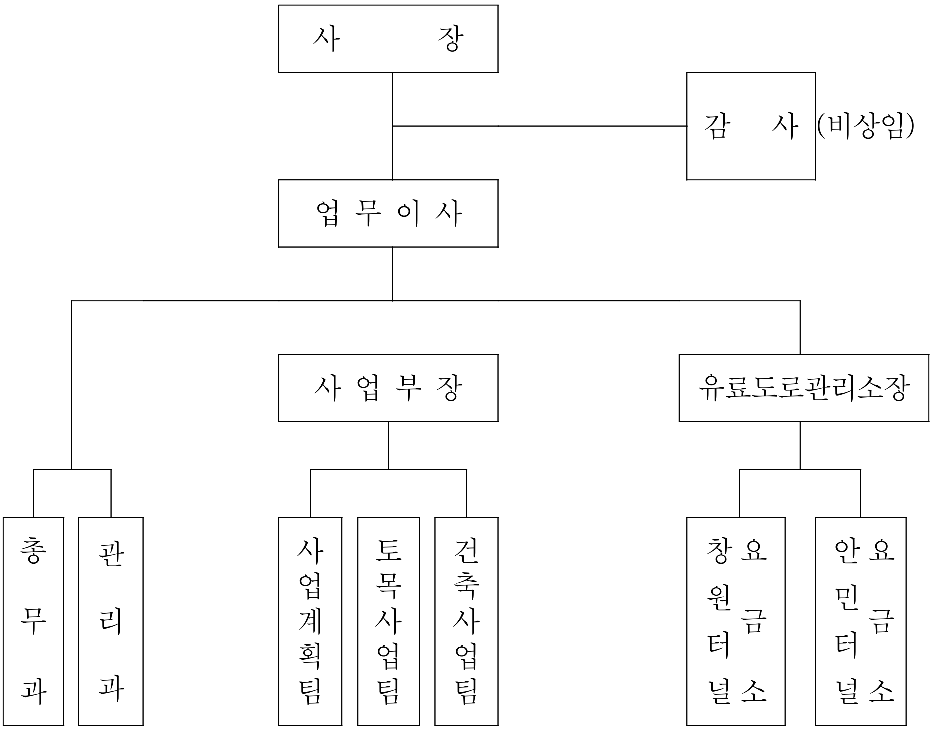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
◦ 전문경영 인력확보로 기업가적『경영마인드』 도입
◦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자치단체 재정확충에 기여

2. 일반현황

◦ 공사명칭 : 경상남도개발공사(慶尙南道開發公社)
◦ 주사무소 : 창원시 천선동 627번지
◦ 분양사무소 : 마산시 내서읍 중리 1121-9 아파트형공장 2층
◦ 설립일자 : 1997. 1. 1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경상남도개발공사설치조례(경상남도조례 제2435호)
◦ 설립방법 :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전환
◦ 자본금
- 수권자본금 : 1,900억원(38,000,000주)
- 설립자본금 : 294억8천2백만원(5,896,400주)
- 출자 :경상남도 전액출자
- 2001년 1월 현재 자본금 총계 : 693억원

Ⅱ. 기구 및 정원

◦ 기 구 : 사장, 업무이사, 1부. 2과·3팀, 1사업소



◦ 정·현원 : 47명(현원44명)
- · 임원(2) : 사장, 업무이사(비상임이사 5, 비상임감사 1)
- · 2급(2) : 사업부장 1, 유료도로관리소장 1
- · 3급(6) : 과장 3, 팀장 3
- · 4급(10) : 사무 5, 토목 3, 건축 2
- · 5급(9) : 사무 2, 회계 1, 전산 1, 토목 2, 건축 1, 기타 2
- · 6급(13) : 사무 9, 전산 1, 토목 1, 건축 1, 전기 1
- · 기능(5) : 사무보조 3, 운전 2

Ⅲ. 사업영역의 다각화

○ 창원터널 관리권 인수(유료도로관리사업 진출)

1. 창원터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9 ~ 1996
◦ 위 치 : 경남 창원시 불모산동 ~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연결도로
◦ 연 장 : 2,340m(쌍굴)
◦ 사업시행방법 : 경상남도 민자유치사업
◦ 투 자 자 : SK건설(주)
◦ 투자금액 : 782억원
◦ 투자비회수 : 시설물은 경상남도에 기부체납하고 통행료 징수
◦ 회수기간 : 1994. 8. 1 ~ 2014. 7. 31
◦ 회수조건 : 투자비, 관리비 및 이자합계 금액과 통행료수입액 일치시점까지 통행료 징수(투자비 미회수시 연장 가능한 조건)

2. 인수배경

◦ SK건설(주)가 계속운영시
· 1999. 12말 투자비용에 이자포함 1,117억원으로 증가
· SK건설(주)부담 대출금리(년 11.25%) 감안
· 현통행료 수입(승용차기준 1,000원)으로는 2017년에 회수가능
· 당초계획보다 3년연장 불가피
◦ 경상남도개발공사 운영시
- 인수협상금액 : 891억원(부가세 제외)
- 재원조달 방안
· 지역개발기금(연리 7.5%) 680억원 차입하여 현금지급
· 잔액 211억원은 통행료 징수하여 지급
- 비용수익 비교
· 2008년까지 통행료 인상없이 차입금액 상환가능

· SK건설(주) 관리시 부담할 총이자 887억원보다 581억원이 적은 306억원만 부담(창원터널 관리권 인수비용수익 비교표 참조)

<창원터널 관리권인수 비용수익>

구 분	SK건설(주)	경상남도개발공사
상환잔액	◦ 1,117억원 (투자비782억원+ 이자등335억원)	◦ 980억원 (투자비 782억원+ 이자등198억원) ※ 부가세89억원 포함 ※ 효과 : 226억원 1,117-891(실제인수소요액)
이 자 율	◦ 평균11.25%(일반자금대출금리) ⇒ 연이자 126억원(년차별감소) 2008년까지 총이자 지급 ⇒ 887억원 ※ 변동금리	◦ 평균7.5%(지역개발기금) ⇒ 연이자51억원(년차별감소) 2008년까지 총이자 지급 ⇒ 36억원 ※ 효과 : 581억원
요금체계 (승용차 기준)	◦ 2017년까지 1,000원징수 ※ 관리기간(2014년)내 회수시 - 2009년 15%인상 불가피	◦ 현행요금 체계 유지가능(1,000원)
투자비 상환기간	◦요금 미인상시 2017년경 상환완료	◦2008년경 상환완료(9년단축)

3. 인수금액 협상

◦ 우리공사에서 SK건설(주)의 1999. 12말기준 장부가격 1,117억원은 고려하지 않고 건설사업비 782억원에서 사업이윤 15%제외할 경우 순공사비를 680억원으로 판단

◦ 이에 대한 발생이자를 300억원으로 추정, 도합 980억원을 인수금액으로 결정 합의 도출

◦ 인수합의금액 980억원에 대한 부가세 포함여부가 최종쟁점이 되었으나 공사에서는 당초 물건가격협상 제시가격에 부가세가 당연히 포함되었음을 주장 관찰시킴

◦ 따라서 SK건설(주)에서 주장하였던 협상가격보다 부가세부분 98억원을 추가 절감하여 891억원에 관리권 인수협약 체결

4. 인수일자

◦ 2000. 11. 10. SK건설(주)와 경상남도개발공사간 터널관리운영권 인수협약 체결

◦ 2000. 12. 1. 0시부터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인수하여 운영개시

5. 추진성과

◦ 우리공사가 1999. 5. 1부터 경상남도와 위수탁협약에 따라 기관리 운영중에 있는 안민터널(창원시 천선동과 진해시 석동 연결, 연장 1,818m)과 연계운영함으로써 민간사업자 단독관리 운영시보다 인건비 및 관리비 년간 3억원정도 절감
◦ 통행료 인상없이 SK건설(주)가 관리할 경우 예상되는 2017년보다 9년 단축 효과 거양

Ⅳ. 분양(임대)촉진 및 활성화 시책추진

○ 공사사무실 이전 → 아파트형공장
○ 분양조건 개선 → 느티나무아파트

아파트형공장 분양활성화를 위한 공사사무실 이전

1. 이전배경

◦ 1998. 12. 31 공사에서 도심내 불량공장 도시근교 이전 및 공장 용지난 해소를 목적으로 마산시 내서읍 중리공단내 아파트형공장을 건립준공
◦ IMF여파로 공장입주 저조
◦ IMF경제위기 극복과 입주기업체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행정지원과 분양활성화를 위하여 공사를 1999. 10. 8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전하는 특단의 조치 단행

2. 이전효과

◦ 공사이전시 금융기관, 식당 및 편의점등 지원시설 동반입주로 입주기업체에서 부가적 편의제공
◦ 입주기업체에 대한 현장지원체제 구축으로 민원등 애로사항 즉시해결 편의도모
◦ 공사사무실 이전에 따른 기업체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홍보효과 거양으로 사무실 이전당시 총 192개 호수중 20개호수(8.2%)의 입주율이 2001. 1월 현재 182개 호수(95%)로 획기적인 임대입주성과 달성

무주택서민을 위한 아파트 분양조건 개선

1. 분양조건개선 배경

◦ 1999. 5월에 마산시의 주택난 해소와 인근지역(함안군, 중리공단등)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마산시 내서읍 삼계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서민아파트(390세대) 건립준공
◦ 좋은 입지여건과 저렴한 분양가격(평당279만원)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위기 여파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가중
◦ 1999. 7월부터 계약금으로 분양금액의 20%납부시 선입주하게 하고 잔금은 21개월 분할납부 방식의 할부분양으로 전환

2. 분양조건개선 효과

◦ 총390세대중 118세대를 분양조건 개선하여 공급함으로서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주택마련 목돈부담 경감과 내집마련의 기회 확대제공으로 주거안정 도모
◦ 우리공사는 미분양물건 조기해소와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투자재원 확보

Ⅴ. 진사지방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 한국경남태양유전 유치
○ EEW, KOREA 입주계약 체결

1. 추진배경

◦ 우리공사는 1993년부터 경남 사천시 사남면 일원에 서부경남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진사지방산업단지 조성
◦ IMF경제위기 이후 산업구조개편에 따라 당초 항공산업위주에서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 추진하여 재료, 소재업종 등 9개 업종이 입주 가능하도록 조치

2. 추진성과

◦ 경상남도 one-stop service 행정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일본투자기업인 한국경남태양유전 유치

<행정처리 일정>

- 1999. 9. 22 : 외국인추자지역 지정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 1999. 10. 28 : 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고시
- 1999. 10. 15 : 한국경남태양유전(주) 법인설립 인가
- 2000. 5. : 공장준공
- 2000. 9. : 제품출하

위와같은 사례로 독일 투자기업인 EEW KOREA와 2000.12.21 계약체결하고 입주 추진중에 있음.

VI.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의 원활한 추진

○ 원가절감 노력 ○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1.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용현면 일원
◦ 면적 : 1,601,317㎡(484,398평)
◦ 사업기간 : 1997 ~ 2004년
◦ 유치업종 : 항공, 수송기기, 전기, 전자 및 정보, 재료·소재

2. 계획단계에서의 원가절감 노력

◦ 본 단지는 남강댐방수로 하류지역에 위치하며 조위영향을 받는 사천만에 위치함
◦ 기본계획시 건설교통부 사천만연안정비계획에 따른 홍수위를 감안하여 단지계획고를 결정하였으나 공사비 과다투입으로 인한 공단조성원가 상승으로 사업시행 불투명

◦ 따라서 경상남도, 수자원공사 및 관계전문가등과 협의하여 수리모형 실험 및 수치 Modeling을 통한 수위예측을 거쳐 단지계획고를 조정하여 약 77억원 상당의 공사비 절감
◦ 동시에 진입도로,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장등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받도록 조치하고, 추가로 경상남도에 도비 100억원 지원 요청하여 반영시킴으로서 산업단지조성원가 절감효과 거양

3. 기업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경상남도와 사천시에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입주지원 전담팀」 설치 합의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대책 구비

4. 사업추진시 예상효과

◦ 위와 같은 사업추진기법으로 조성원가 인하효과와 행정력의 적절한 활용으로 본단지는 39만원/평대의 조성원가 유지(주변 산업단지 원가 : 어곡지방산업단지 68만원/평, 녹산국가산업단지 61만원/평)할수 있어 조성이 완료되는 2004년까지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가격면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
◦ 연접한 진사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서부경남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효과 창출기대

Ⅶ. 웅상환경시설 가동

1. 추진배경

◦ 양산시 웅상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인가조건사항인 공단내 발생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오폐수처리시설,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 양산시에서 주변지역 집단민원우려 및 시설운영비(년간 10억원) 지원없이는 인수거부
◦ 부득이 우리공사에 동시설 가동방안을 모색

2. 추진내용

◦ 시공자인 롯데기공(주)에 위탁관리운영 계약하여 가동하고자 함
 - 년간 시설가동 운영비 9억원 예상
 - 폐기물을 일정기간 수집하여 월 4-5일간 가동하는 방안 제시
 - 1999. 5. 25 롯데기공(주)와 위탁계약 체결

◦ 월 25일이상 가동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환경부, 경상남도, 양산시)를 추진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1999. 9. 30 롯데기공(주)와의 위탁관리운영 계약 해지

◦ 공공처리시설을 영업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 관리운영자 공개소집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기운영하고 있는 한미산업(주)를 선정
 -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의 전문성과 우리공사 조직력을 활용하여 영업허가 추진

◦ 인근지역민의 집단민원 해소
 - 공공처리시설을 영업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가동반대 집단민원 발생
 - 웅상읍 이장단 협의회에 참석 사업설명회 개최
 - 이장단 및 지역대표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 신도시 소각장 및 마산시 소각장 견학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설득 병행
 - 2000. 2. 25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대표자 가동합의 도출(가동수익금중 년간 3,000만원 지역환원, 가동인원 웅상읍민 채용)
 - 3,000여명의 가동반대 잔여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100% 동의를 받음

◦ 영업시설로 전환 환경부 합의
 - 공공처리시설을 영업시설로 전환하고자 환경부와 협의하였으나 반대의견 제시
 - 동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환경위해요인 증가와 주민합의 사항을 근거로 설득하여 2000. 10. 10 영업시설로 전환 합의

3. 추진성과

◦ 2000. 10. 10 : 사업계획 적정통보(양산시)
◦ 2000. 11. 28 : 폐기물처리업 허가
◦ 2000. 11. 29 : 가동개시 신고

◦ 2년여 기간동안 끌어오던 시설가동 이행
◦ 당초 롯데기공(주)에 위탁할 경우 년간 9억원의 위탁관리비를 영업시설로 전환 운영함으로 수익기대
◦ 위탁운영에 따른 임대수익금 주변지역에 환원토록 조치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도민의 기업이미지 부각

Ⅷ. 2000년대 경영전략 우수공기업 선정

◦ 1999. 8. 27 ~ 8. 28 행정자치부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자치경영협회가 주관한 지방공기업 2000년대 경영전략심사에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
◦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99년도 당기순이익이 전국지방공기업중 2위를 차지
◦ 대외적으로 경영전략의 비전창출 공인
◦ 대내적으로 내실경영의 성과 달성
◦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인도 제고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사기와 자긍심 고양

시사용어 해설

◈보틀넥 인플레이션(Bottle-neck Inflation)

생산요소의 일부가 부족되는 상태, 즉 애로(隘路)가 생김으로써 생산능력 증가속도가 수요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병목현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 앞으로는 자원제약(資源制約)문제 환경보전문제 등이 제기되어 1차산품이나 토지 등이 보틀넥이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설비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활발치 않으면 투자부진으로 공장 기계 등의 생산설비의 보틀넥이 발생, 물가상승에 이어 긴축정책, 뒤이은 불황, 투자부진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